

대강당(혜이안 시대 국보)

가람 정면 안쪽에는 단층 구조로 된 대강당이 들어서 있습니다. 대강당은 과거에 승려들의 학문소와 식당으로 이용되었습니다.

925년에 낙뢰로 인해 종루와 함께 소실되었다가 990년에 의약과 치유를 관장하는 부처인 본존 약사여래와 함께 재건되었습니다.

강당 내에 안치되어 있는 불상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것은 재건에 맞춰 조성된 약 2.5m의 약사여래좌상으로, 양 옆에는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강당 내에는 법요 때 승려가 앉는 한 쌍의 고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